

# 寶林寺 石塔內 發見

## 舍利具에 대하여

鄭 永 鎬

全羅南道 長興郡 有治面 鳳德里 迦智山 西南麓에 寶林寺가 있다. 寶林寺는 新羅 下代에 이르러 창건된 九山禪門의 하나로 禪宗의 第一祖師인 道義禪師와 第三祖인 普照禪師를 각각 그 開山祖와 開山人으로 받들고 있는 禪刹로서 邑域부터 널리 알려진 곳이다. 그리고 이곳에는 境內에 三層石塔과 石燈·鐵造毘盧舍那佛坐像이 國寶로 指定되고 주위에 東浮屠·西浮屠·普照禪師彰聖塔·塔碑 등 四點의 寶物이 保存되고 있어學者들의 注目도 많으며 四季節 訪問客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言及하려는 內容은 이곳 法堂 前庭에 東·西로 위치한 兩石塔內에서 수습된 舍利具에 대한 것이다.

즉 一九三三年 겨울에 盜掘꾼들이 舍利裝置를 盜取할 목적으로 東·西塔을 파괴하였으나 未遂에 그쳤으며 그 다음 해인 一九三四年 가을에 이르러 파손된 兩石塔의 補修作業을 실시하게 되었었는데 이때 石塔의 解體중 初層屋身石 上面 中央의 舍利孔內에서 塔誌와 함께 裝置한 舍利具가 발견되었던 것이다.

이들 舍利裝置에서 우선 注目を 끄는 것은 塔誌石으로 東·西塔에서 각기 一枚石씩 나왔는데 兩塔誌의 銘文에 의하면 이곳 東·西雙塔의 建立이 新羅 景文王 十年(八七〇AD)의 일임을 알 수 있으며 이年代는 곧 石塔 自體의 樣式과 各部手法上의 推定年代와도 合致되어 注目되고 있다. 그리고 또한 塔誌에 의하면 이 兩石塔은 창건 후 三次에 걸쳐 修理하였음도 알 수 있는데 이렇듯 여러 차례에 거치는 修理가 있었으나 현재 完全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아울러 建立年代가 뚜렷한 石塔으로 더욱 귀중하다 하겠다.

당시 兩石塔에서 발견된 塔誌에 대해서는 『靑丘學叢』 第十九號(一九三五年 二月 刊) 藤田教授의 「朝鮮金石瑣談(一)」에 실려져 있으며 또한 末松保和博士 著書인 「新羅史의 諸問題」(一九五四年 九月 刊) 附錄에 「近時發見의 新羅金石文」이라 題하여 그 銘文의 全文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兩教授는 塔誌의 銘文만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餘他的 舍利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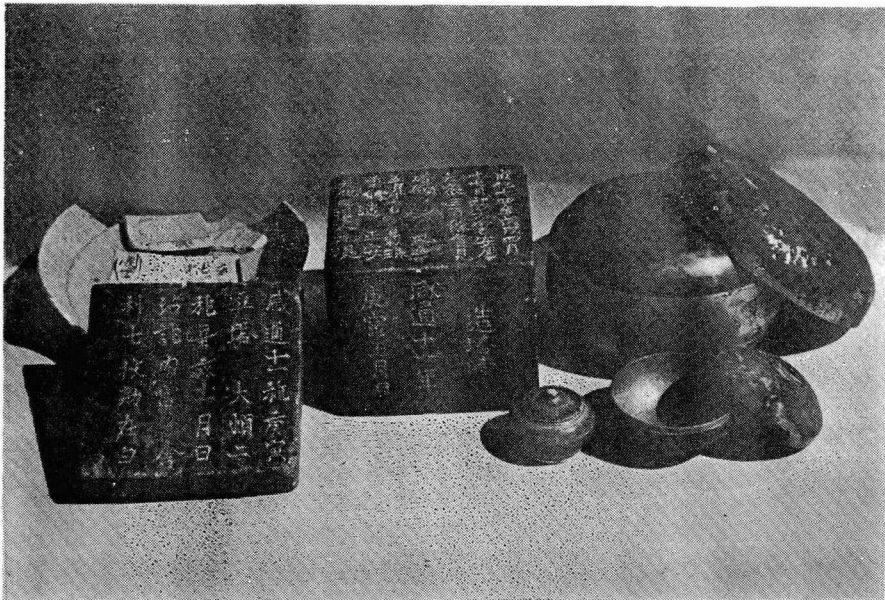


圖 1. 東·西 三層石塔內 發見 舍利具 (現存品)

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筆者는 지난 四月 一二日 現地를 踏査하고 長興郡廳 文化公報室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現存 舍利具(圖 一)를 조사하여 우선 오랜 동안의 숙제를 풀 수 있었다. ①

一九三四年에 발견된 이래 아직 한번도 이 舍利裝置에 대한 調査 檢討 없이 오늘에까지(一九七四年 四月) 이르렀다. 四十年이 지난 그 동안의 保管경위에 대하여서 現 長興郡 文化公報室長 朴남형씨도 잘 알 수 없었다면서 傳聞한 바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제 침략기에 石塔 보수공사를 끝내고 사라진 舍利體를 장흥경찰서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八·一五光復 이후에 장흥군청으로 이관하였다가 六·二五동란 이후 文化財사무가 교육청으로 넘어가면서 이들 유물보관도 교육청으로 이관되었는데 근년에 이르러 文化財업무가 다시 군청으로 넘겨지면서 寶林寺 石塔內 舍利具도 郡廳 文化公報室로 移安 보관하게 된 것이다.」

현재 長興郡廳 당국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內容物의 貴重性보다도 사무적으로 保管을 맡고 있을 뿐이므로 數次의 移管 소동 때문에 現存 遺品들은 모두 손때가 묻고 또 部分的으로 파손도 되고 하여 四十年間의 放置가 애석할 뿐이었는데 그래도 한편 이렇듯 오랜 世月이 흐르는 가운데 이 정도라도 남게 되었으니 다행스럽다는 마음이 앞서 筆者는 즐겁게 諸 遺物을 調査할 수 있었다.

序頭에서도 말하였듯이 여기에 적으려는 內容은 바로 이들 現存 舍利具를 소개하려는 것인바 이 遺品들이 비록 발견 당시의 原形을 잘 간직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상세한 圖版과 說明으로서 앞으로 이 方面을 研究하는 同學들에게 하나의 參考資料가 될까 하는 마음과 그리고 아직 塔誌 이외의 餘他的 舍利具에 대한 論議가 없었으므로 겸하여 여기에 그 전모를 기록해 놓으려는 것이다.

현재 長興郡 文化公報室에서 보관하고 있는 遺品은 塔誌 二枚石·靑銅盒 三點·蠟石製壺 一點·白磁접시 一點·其他 木片과 袈裟消末粉 등인데 어느 때의 遺物引繼書인지는 알 수 없으나 現存 遺品과 함께 보관되고 있는 引繼書에는

一、鍮器 四會一組(佛利十一個)

二、重石類 二個

三、木片 二個

四、陶磁器破物 一個(國寶十號、消末粉)

五、白色六角子슬 一個

六、합지 銀製 一組

七、沈香 若干

八、蠟石粉末若干

九、支提誌 一卷

으로 되어 있다. 引繼書에 명시된 品目과 現存 遺物과는 차이가 나고 있음을 곧 알 수 있는데 당국에서는 교육청에서 引受할 때부터 이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 보관하고 있을 때의 착오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바 이제 現存 遺品만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一、塔誌……東·西塔에서 각각 一石씩 발견되었는데 어느 塔誌가 東塔에서 나온 것인지, 현재의 보관상태로서는 분간할 수 없다. 그러므로 日人學者들이 당시에 기록해 놓은 銘文에 의하여 東·西塔誌를 분별하고 따라서 또 다른 遺物도 이렇게 하여 가려내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

1、東塔誌……蠟石製로 長方形인데 上面에는 井間을 알기 陰刻하고 한 칸에 一字씩 楷書로 「感通」銘의 新羅代 창건시의 銘文을 陰刻(字徑 一·三—一·六 cm)하고 下面에는 井間 없이 「成化」銘의 朝鮮時代 重建時 銘文을 陰刻(字徑 一·三—一·八 cm) 하였으며 側面 四面에는 「崇禎」銘의 朝鮮時代 重創時 銘文을 陰刻(字徑 一·三—一·八 cm)하였는데 朝鮮時代의 字體는 세련되지 못하고 있다. 實測値는 九·一 cm—九·六 cm×七 cm. 두께 二·五 cm—二·六 cm이며 全文은 圖 一와 圖 三에 보이므로 여기에 移記는 하지 않겠다.

2、西塔誌……東塔誌와 마찬가지로 蠟石製 長方形인데 東塔誌와 다른 점은 東塔誌는 두께가 얇아서 表·裏面이 뚜렷하나 西塔誌는 두꺼워서 立方體의 塔誌이다. 側面 四面에는 三間씩의 行間을 알기 陰刻하고 楷書로 「造塔時」「感通十一年」銘의 新羅代 창건시의 銘文을 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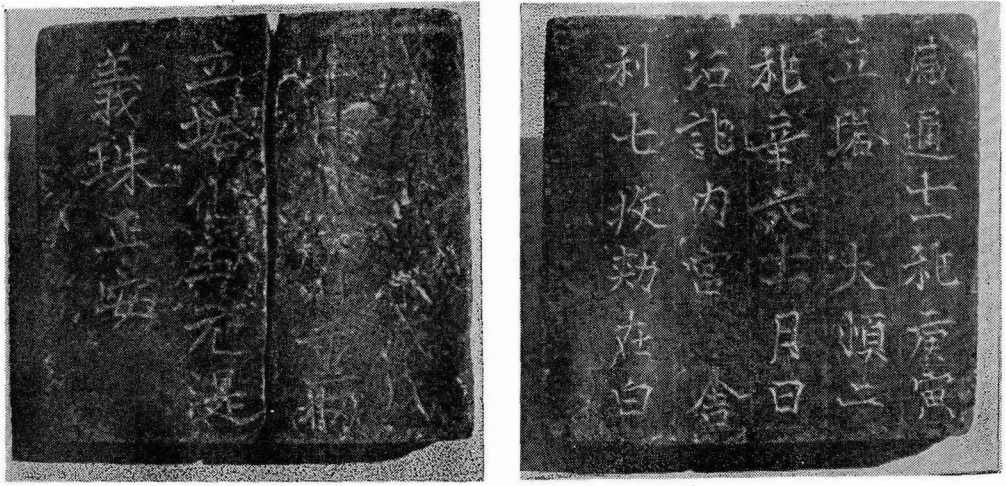


圖 2. 東塔誌 上面(右)과 下面(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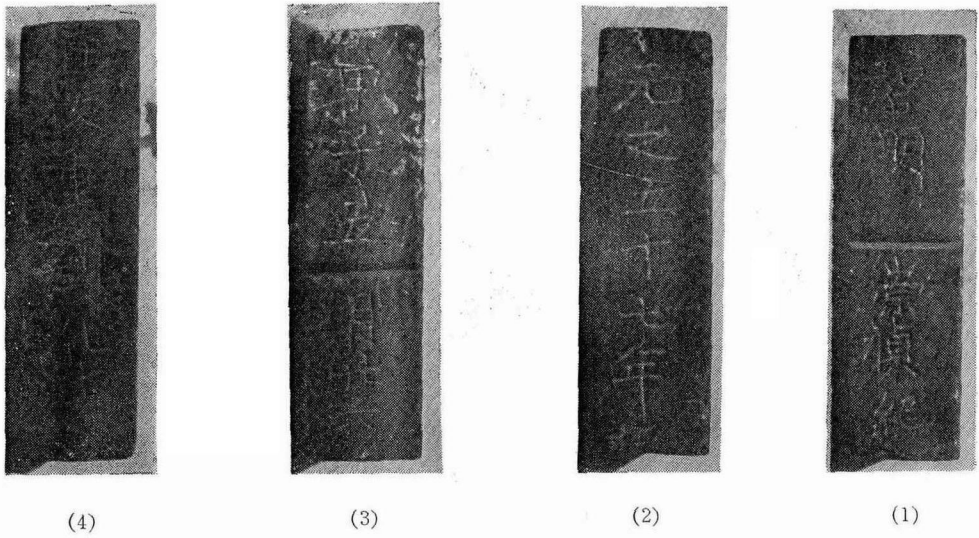


圖 3. 東塔誌 側面 (右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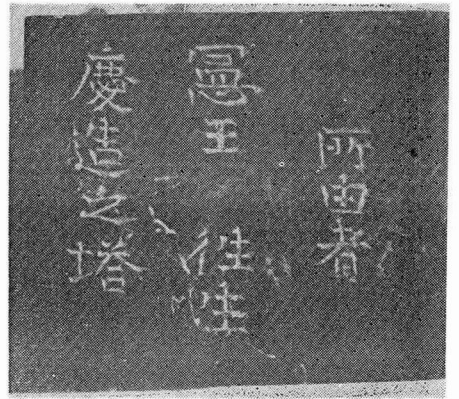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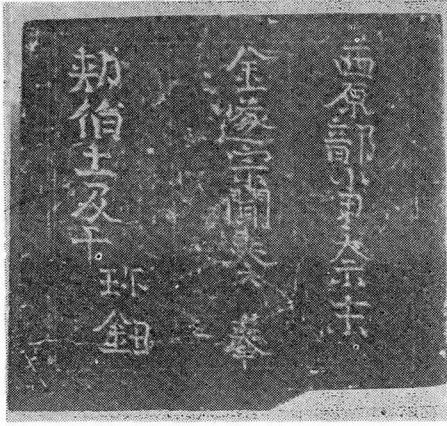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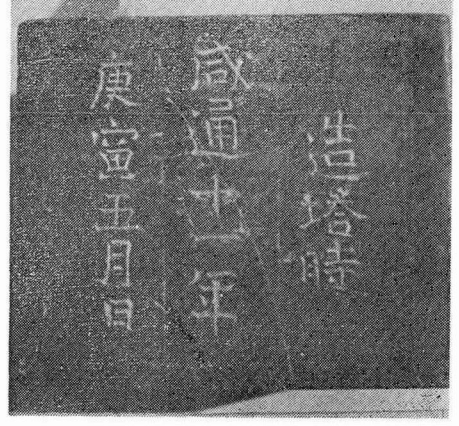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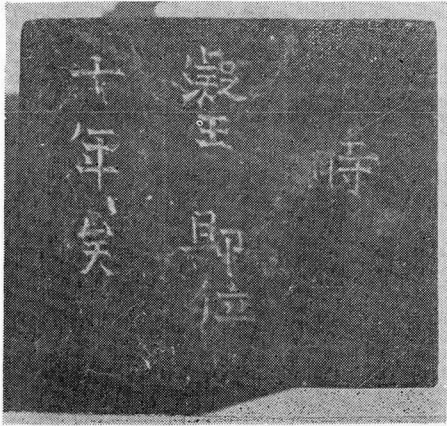


圖 4. 西塔誌 側面 (上右・左, 下右・左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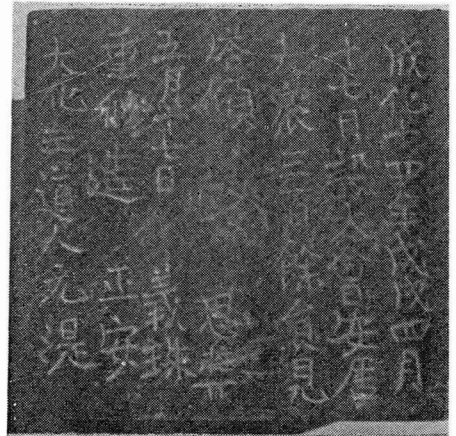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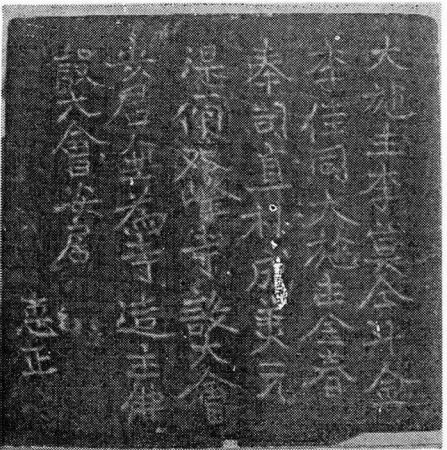


圖 5. 西塔誌 上面(右)斗 下面(左)



圖 6. 靑銅製盒과 蠟石製壺

刻(字徑 一·三—一·六cm)하였다. 그리고 上面에 行間 없이 「成化十四年」銘의 朝鮮時代 重修記를 刻字(字徑 〇·八一—一·二cm)하였으며 下面에도 行間 없이 「大施主」銘을 楷書로 陰刻하였는데(字徑 〇·八一—一·二cm)字體는 역시 세련되지 못하였다. 實測値는 九·三cm(九·四cm×八·一cm—八·二cm. 두께 九·一cm—九·二cm)이며 全文은 圖四와 圖五에 보이므로 여기에는 移記를 생략하겠다.

二、靑銅盒……모두 三點으로 그 크기로 보아 大·中·小形으로 나눌 수 있는데 大形靑銅盒은 西塔에서 발견된 것이고 中形靑銅盒은 東塔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으나 小形盒은 어느 쪽 塔에서 발견된 것인지 알 수 없다. (圖六)

1、東塔內發見靑銅盒(圖七)……中形으로 그릇의 높이 四·一cm, 넓이 一〇·二cm, 두께 一·五mm. 두정의 높이 三·九cm, 넓이 一〇·六cm, 두께 一mm이다. 打製가 아닌 것은 上·下面 등에 同心圓의 磨線이 있어서 곧 알 수 있는데 全面에 녹이 덮혀 있지는 않으나 약간 푸른색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赤銅色이 全面에 完연하다. 이靑銅盒에서 注目되는 것은 뚜껑 表面 下緣部와 그릇 表面 下緣部에 點線으로 같은 內容의 銘文이 있는데(字徑 一·五cm—二cm) 그 全文은 「嘉靖十四年乙未四月日立塔重修記化主義根」이다. 이盒은 아무런 破損도 없이 보존상태가 아주 좋은 편이다.

2、西塔內發見靑銅盒(圖八)……大形으로 그릇의 높이 五·二cm, 넓이 一一·七cm, 두께 一·五mm. 두정의 높이 一一·九cm, 넓이 一一·二cm, 두께 一·五mm이다. 뚜껑이나 그릇의 上·下面에 同心圓線이 있는 것으로 보아 打製가 아님을 곧 알 수 있다. 뚜껑 一部에 破損이 있을 뿐 各部가 完全하며 보존상태가 좋은 편이다. 이靑銅盒에도 點線 銘文이 있는데 뚜껑에는 없고 그릇 表面의 中下部에 한 줄로 둘러져 있으며(字徑 一·三cm—二cm) 그 全文은 「嘉靖十四年乙未五月日立塔施主翁 □□□□化主義根」이다.

3、小形靑銅盒(圖九)……內外面에 아무런 銘文도 없고 발견된 塔도 어느 塔인지 알 수 없다. 그릇의 높이 二·七cm, 넓이 五·八cm, 두께 一mm, 굽높이 〇·五cm. 뚜껑의 높이 一·八cm, 넓이 六cm,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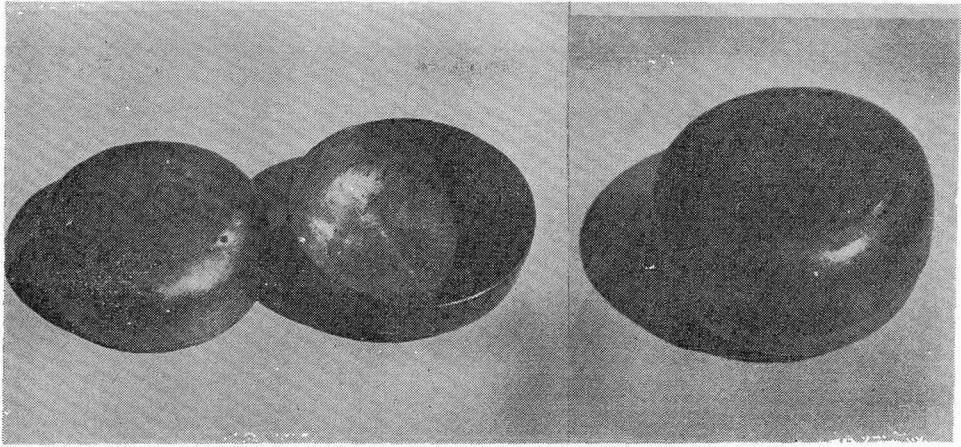


圖 7. 東塔內發見 青銅盒(右)과 그 器·蓋 裏面(左·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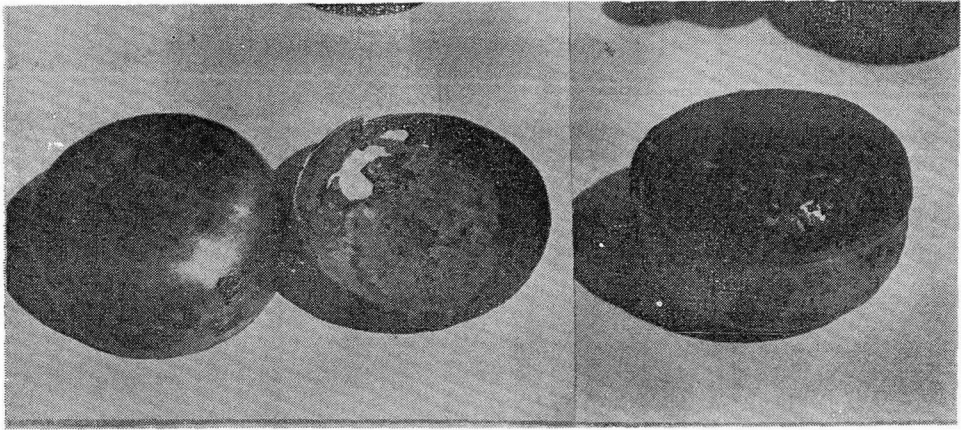


圖 8. 西塔內發見 青銅盒(右)과 그 器·蓋 裏面(左·中)

개 一 mm、頂面圓座徑 二 cm이다. 그릇이나 뚜껑에는 아무런 破損도 없고 綠銹가 表面에 많이 보일 뿐이다. 뚜껑에는 頂面に 얇은 圓座가 마려지고 그릇에는 下面에 넓직한 굽이 있으며 높이에 비하여 그릇이 넓기 때문에 一見하여 香盒과도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年代는 위의 兩青銅盒과 同代로 보아도 無理는 아닐 것 같다.

三、蠟石製 舍利壺(圖 一〇)……蠟石製壺로서 뚜껑까지 남아 있는데 뚜껑을 덮은 전체의 높이는 三 cm이며壺의 높이 二·三 cm、안쪽 깊이 一·三 cm、입구경 二·七 cm、넓이 四·二 cm。뚜껑 높이 一 cm、넓이 二·八 cm이다. 壺의 下面에 墨記가「寶林寺 玉石造小舍利盒壹個成化十四年 戊戌午月廿六日 寶林寺秘藏國寶 第五號」라 있는데 이것은 처음 발견 당시에 기록하여 붙여놓은 것 같기도 하다. 「成化十四年 戊戌午月」 銘塔誌는 東塔에서 발견된 것인데 그렇다고 하여 이 壺를 東塔에서 나온 것이라고 斷定하기는 어렵다. 그 理由는 앞으로 言及하겠거니와 餘他的 당시의 後記墨書는 모두 「成化十四年 戊戌午月」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蠟石製壺는 小形이기 때문에 舍利를 奉安하는 舍利壺의 외에는 다른데 용도가 없을 것이므로 舍利壺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렇듯 蠟石으로 舍利具를 造成한 實例로는 그 規格은 같지 않으나 八公山 桐華寺 毘盧庵 三層石塔內에서 발견된 舍利裝置에서도 볼 수 있었으며 慶北 奉化郡 西洞里 東·西三層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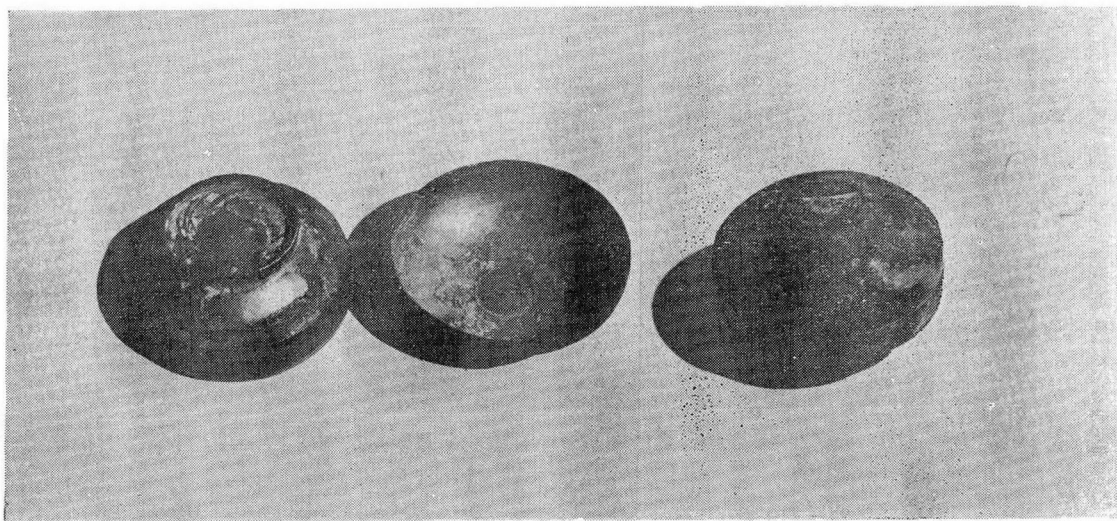


圖 9. 小形靑銅盒(右)과 그 器 蓋 裏 面(左·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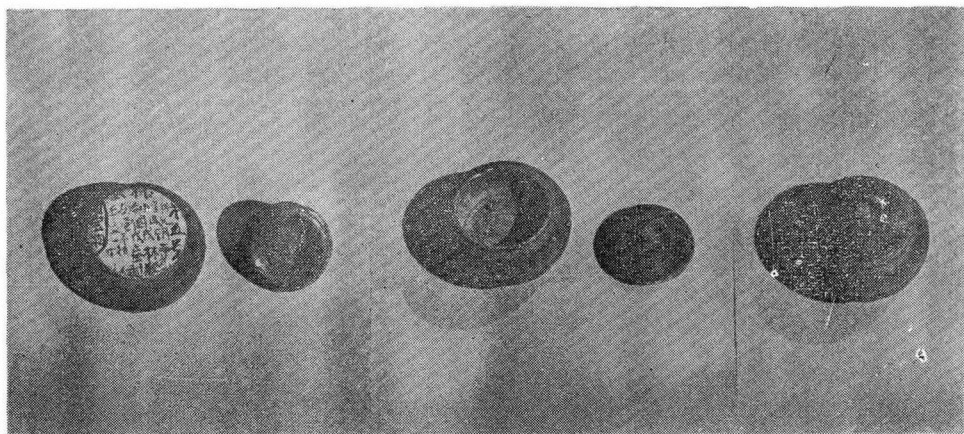


圖 10. 蠟 石 製 舍 利 壺

塔修理工事中東塔에서 수습된舍利裝置<sup>③</sup>와慶北奉化郡物野面北枝里鷲棲寺三層石塔內에서 발견된「咸通八年銘」舍利圓壺<sup>④</sup> 등에서도 들 수 있겠다. 그리하여 이蠟石製舍利壺는 그形態나造成樣式과手法을 以上の 實例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新羅時代의所作임을 알 수 있겠다.

四、白磁접시와 其他遺物(圖一一)……원래는完形의 상태로石塔에서 발견 되었던 것이나, 數次의 移管으로 말미암아破損된 것같은데 현재 그 破片은 모두 남아 있어서復原이 가능하다. 아래 굽이 얇고 좁은 편이며 바닥과 어깨가 넓은 편이다. 높이 四·五cm, 넓이 一三·二cm, 굽높이 一cm, 굽경 五·二cm의 크기이다. 年代는發色이나造成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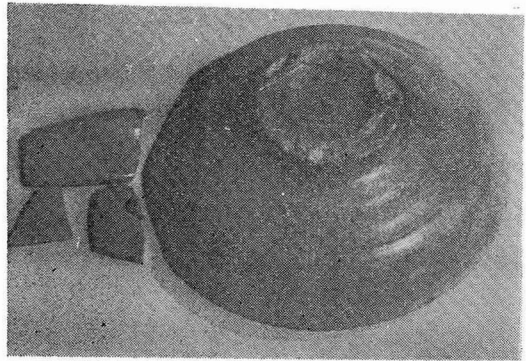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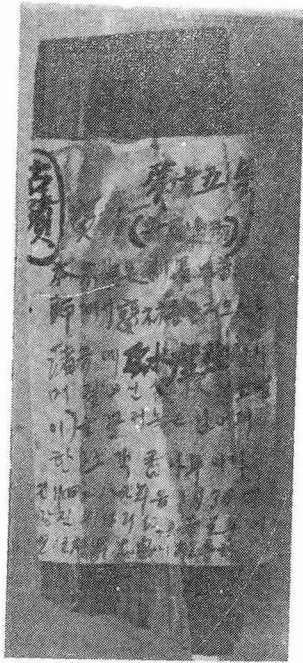


圖 11. 石塔內 發見 白磁鉢 及其他遺物

法과 釉藥 등으로 보아 靑銅盃과 同代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밖에 木片과 袈裟片이 있는데 木片은 普照禪師의 지팡이 조각이라 일컫고 있으며 현재 一三·七—一五·二cm × 一·二—一四·五cm 크기의 조각이 남아 있다. 이 木片을 싸은 종이에 는 다음과 같은 墨記가 있다.

「寶林寺 古蹟 第十五號(新羅遺物) 本木片은 新羅의 普照國師께서 寶林寺를 지으신 후 訪方에 聖水度生하시며 置으신 錫杖(지팡이)을 꽃아 놓은 나머지 한 조각 香나무이다. 단기 四二八九年 음 三月三日에 강진 쿠나리 紅蓮寺로부터 본 住持 羅大興이 推尋함」.

한편 袈裟片이라 일컫는 것은 이른바 「道義國師의 袈裟」 消末粉 한 봉지와 「普照禪師의 袈裟片」이라는 것이 있는데 모두 「灰色의 재」 뿐이어서 무엇이냐라 形言하기 어렵다. 봉투에 墨記가 있으므로 그런 줄 알겠다. 또한 「成化十四年 戊戌午月 廿六日 寶林寺(現秘存)」의 墨記는 石塔內에서 발견 수습된 것이므로 적어놓은 것 같다.

이 밖에 舍利 四顆가 봉투 속에 있는데 表記에 「寶林 新羅遺物 第十三號 初祖道義祖師 舍利(白) 四個 寶林寺(現秘存)」이란 墨記가 있다. 舍利는 灰白色으로 다른 石塔內에서도 볼 수 있는 一般의 인 색깔과 형태이다.

圖 一〇에서 볼 수 있듯이 各遺物의 表記墨書에는 모두 「成化十四年 戊戌午年 廿六日」이라 있는데 이것은 東塔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도 다는(東塔誌에 「成化十四年 戊戌午月 廿六日」이라 있으므로 곧 東塔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가 쉽다.) 東塔誌의 銘文을 引用 表記한 것으로 생각 하는 것이 옳겠다. 그 理由는 이 墨記外에 다른 年代의 表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이상 현재 長興郡廳에서 보관하고 있는 寶林寺 石塔內 發見 舍利具에 대하여 筆者가 最近에 조사한 내용을 적어 보았다. 앞에서 말 하였던 이 발견된지 四十年이 지난 오늘날 그 原形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을 리 없겠지만 그래도 現狀態에서 原狀을 짐작하기에는 足하므로 不幸中 多幸이라 생각 되는바 앞으로 이 舍利具들을 보다 좋은 保存策을 강구하여 現狀態에서 다시 더 損傷이 가지 않도록 萬全을 期하여야 됨을當局에 바라는 바이다.

끝으로 한가지 附言할 것은 東·西塔에서 발견된 塔誌나 舍利裝置의 各銘文으로 보아 이 兩塔의 改修來歷을 보면

- 一、新羅 景文王 十年(八七〇 A D 咸通十一年)에 처음으로 세우고
- 二、新羅 眞聖王 五年(八九一 A D 大順二年)에 舍利 七枚를 奉安하였으며
- 이후 三次에 걸친 補修가 있었으니

三、朝鮮 第九代 成宗九年(一四七八 A D 成化十四年)에 一次 改修가 있었고

四、朝鮮 第十一代 中宗 三十年(一五三五 A D 嘉靖十四年)에 二次 補修가 있었으며

五、朝鮮 第十九代 肅宗十年(一六八四 A D 崇禎紀元後五十七年)에 第三次의 改修가 있었다.

六、마지막으로 一九三四년의 解體復原이 이루어졌었던 것이다.

遺品에 있어서는 塔誌 二枚石과 蠟石製舍利壺가 新羅代 初創時의 奉安이고 나머지는 모두 朝鮮時代의 遺物인데 塔誌만은 初創時의 改修時 年月, 施主名 등을 後刻하였음을 알 수 있다.

註

- ① 寶林寺 石塔內 發見 舍利裝置가 長興郡廳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黃壽永博士와 鄭明鎬氏로부터 傳聞하였는데 數次 現地를 踏查하여도 實物의 調査는 今次가 처음이었다.
- ② 黃壽永 : 「新羅 敏哀大王 石塔記」 桐華寺 毘盧庵 三層石塔의 調査」 史學志 第二輯 所收, 檀國大學校 史學會(一九六九年 七月刊)
- ③ 黃壽永 : 「奉化 西洞里 東三層石塔의 舍利具」 美術資料 第七號 所收, 國立中央博物館(一九六三年 六月刊)
- ④ 博物館陳列品圖鑑(總督府博物館刊) 第八輯 所收. 한편 이에 대해서는 今西龍博士의 「鶯樓寺舍利石盃刻記」라題하여 그의 著書인 「新羅史研究」에 소개되어 있다.